학번: 21706243 학과: 행정학과 이름: 황명균

 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과목번호 2533, 2534: 강의실 법행 1205)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현재 한국의 인구는 수도권 주변으로 전체 인구의 45%가 밀집되어 있다. 인구 밀집 3위인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인구 차이는 3배가 넘으며 서울은 이미 종주도시 범주에 들어가있다. 이러한 인구밀집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한국의 경제는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18년 5월 2일자 한국 경제 수출 의존도를 살펴보면 국민 총소득 대비 수입률 비율은 84.0%에 해당한다. 이는 OECD평균인 53%를 넘는 수치이며 수출입의 상승에 따라 일자리 창출의 영향이 있으나 내수경제 비율이 낮으면 수출입 회사가 몰려 있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일자리가 몰리기 때문이다.

첫번째로는 기업의 사업 확장이 있다.

시세이도라는 일본의 화장품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1927년 설립된 회사로 종업원수 33000명 이상의 큰 대기업이다. 이 시세이도가 올해 초부터 일본 도치기 현에 3540억여원을 투자하여 기초화장품 생산 고상을 짓고 있다. 시세이도는 이바라키시에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550억여 엔을 투자하여 공장을 짓고 있다. 시세이도가 일본 내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35년만이라고 한다. 시세이도는 2004년 일본에서 판매부진으로 기존의 6개 생산공장을 2015년 까지 3개로 줄이고 여기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화장품 쓰는 젊은 인구가 급감한 것이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시세이도의 주가는 지금 2015년 2000엔에서 지난달 말 8700엔까지 폭등했다. 매출액 또한 2012년 6823억엔에서 2017년 1조 51억엔을 뛰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 관광객 덕분이다.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2007년 834만에서 2017년 2869만명으로 10년만에 3배가 넘는 수로 훌쩍 뛰었고 일본에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본국으로 귀국해서도 계속 사면서 화장품 내수 판매와 수출이 급증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업 확장의 분위기는 시세이도에만 국한된 아야기가 아니다. 외국인 관광객 관련 어종인 과자, 유통 및 지방 호텔업체들도 공장 신, 증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 산업을 활성 시키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지역의 인구 밀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내수 경제가 먼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내수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지방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환경이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번: 21706243 학과: 행정학과 이름: 황명균

1.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말한다. 지역, 농촌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의 감소, 그리고 생활방식이 어느 사회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것인가. 도시화는 도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 계획, 지리, 사회학, 건축, 경제, 공중보건 현상은 근대화, 공업화, 그리고 근접하게 연결되어 왔다. 합리화의 사회학적 과정 도시화는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해진 시간에 조건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상태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화는 그렇게 딜 수 있다. 인구의 도시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로 증가하는 도시화는 거대한 사회ㅡ, 경제, 환경을 만든다. 도시화는 단지 현대적인 현상이 아니라, 빠르고 역사적인 현상이다. 주로 시골에서 사는 전세계적인 규모의 인간 사회적 뿌리의 변화 문화는 주로 도시 문화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제 1전공 정착양식의 변화는 수렵인이 마을에 축적되는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초기 된 개발부터 18일 까지 세기, 대부분의 인구 사이에 평형이 존재했다. 농촌의 문맥에서 생계형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량의 중심지에 종사하고 있다. 경제 활동이 주로 무역으로 이루어진 도시의 인구 소규모의 시장 및 제조 업체에서 상대적인 것 때문에 이 기간동안 농업의 정체, 농촌과 도시의 비율 인구는 일정한 평형을 유지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농업과 산업 혁명이 시작되면서, 이 관계는 마침내 깨졌고 도시에서는 전례없는 성장을 했다. 인구는 19세기에 걸쳐 계속되었다. 시골로부터의 이주 그리고 엄청난 인구 통계학 때문에 그 때 일어난 팽창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우, 그 비율이 가장 높다. 도시하는 빠르게 서구세계에 퍼졌고 1950년대 이후부터 계속되었다. 개발 도상국에서도 자리를 잡기 시작 했다. 20세기 초에 세계 인구의 15%만이 도시에 살았다. UN에 따르면 2007년 세계 인구의 50%이상이 살고 있는 전환기를 목격했다. 도시에서는 인류 역사상처음으로 예일대는 2016년 6월 3700년 당시의 도시화 자료를 발표했다. 그 시기 동안 세계의 도시들 도시의 기언과 확산 세계의 센터들은 또한 고고학자들에 의해 지도화 되었다. 도시화는 유기적으로 발생하거나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결과로서 계획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국가 조치, 도시에서 사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유익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더 큰 기회, 나은 교육, 주택, 그리고 안전 조건 그리고 통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교통수단 밀도, 근접성, 다양성 및 시장과 같은 조건 경쟁은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도시 환경의 요소들이다. 그러나 또한 발생하는 해로운 사회 현상, 소외, 스트레스, 비용 증가 등이 있다. 도시적이 생활방식과 연관된 대량 한계화. 가장 큰 개발 도상국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외화 국가들, 도시의 이러한 해로운 면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도시화가 진행 되면서 도시 열섬의 존재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만 가는 유려가 되고 있다. 도시 열섬은 산업과 도시 지역이 생산되고 유지될 때 형성 된다. 시골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많은 부분이 밭에 의해 소비된다. 초목과 흙에서 나오는 물의 분말이 도시에서는 식물이 적고 노출된 토양, 태양 에너지의 많은 부분이 밭에 의해 소비된다. 초목과 흙에서 나오는 물의 분말이 도시에서는 식물이 적고 노출된 토양, 태양에너지의 대부분은 건물과 아스팔트에 흡수된다. 높은 표면 온도로 이어질 수 있다. 차량, 공장, 산업 및 가정용 냉 난방 장치는 훨씬 더 많은 열을 방출한다. 결과적으로 도시는 흔히 주변 경관보다 1~3도 따뜻하다. 영향도 토양 수분 감소와 이산화탄소 재흡수 감소 등이 포함된다. 도시화는 주로 환경에 긍정적이다. 첫째 새로운 것의 출생률 도시 거주자는 즉시 대체율이 떨어지고 계속 하락하여 감소한다. 둘째 농촌에서의 이민 농촌 지역은 부적절하게와 같은 파괴적인 자급자족 영농 기술을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도시화는 r&d를 증가시킴으로써 오염배출을 억제한다.

1.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 이론은 시몬스가 주장한 이론으로 도시 내부구조는 인종별 분산, 도시화 , 사회계층 등 3개 차원에서 파악됨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이다. 전통적 공간구조이론의 한계극복, 통합을 시도한 이론이다. 인종별 분산의 차원을 해리스와 울만의 이론가운데 토지 이용상의 핵과 같이 본질적으로 무질서하게 분포하여 다핵심을 이룬다. 도시화의 차원은 가족구성, 세대유형, 노동력을 반영하여 버제스의 주장처럼 동심원을 이룬다. 사회계층의 차원은 인구의 교육, 경제 등의 수준을 통하여 호이트가 제시한 것처럼 선형을 이룬다.

다핵심이론은 해리스와 울만은 도시토지이용의 패턴은 동심원설이나 선형이론과 같이 단일핵심의 주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의 핵심과 그 주위에 형성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핵 또는 핵심이란 그 주위에서 도시의 성장이 발생하는 어떤 견인적 요소(주거, 업무, 공업, 기타)를 의미한다. 도시의 핵으로 중심상업지구, 도매 및 경공업지구, 주택지구, 소핵심지구, 교외와 위성도시를 들고 있다. 핵의 출현이유로는 특정위치나 특정시설의 필요성, 동종 활동 간의 집적이익, 이질활동 간의 입지적 비 양립성, 지대지불의 능력의 차이 등을 들고 있다.

두 이론의 차이점은 도시 토지 이용형태에 있어 교통로, 특히 간선도로와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니 그가 제시한 것과 같은 모양으로 도시 토지이용구조를 형성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각 섹터내에서 주택의 질을 통해 도시성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의 결절지점에 대한 접근성이 중시되는 현대 거대도시에 이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